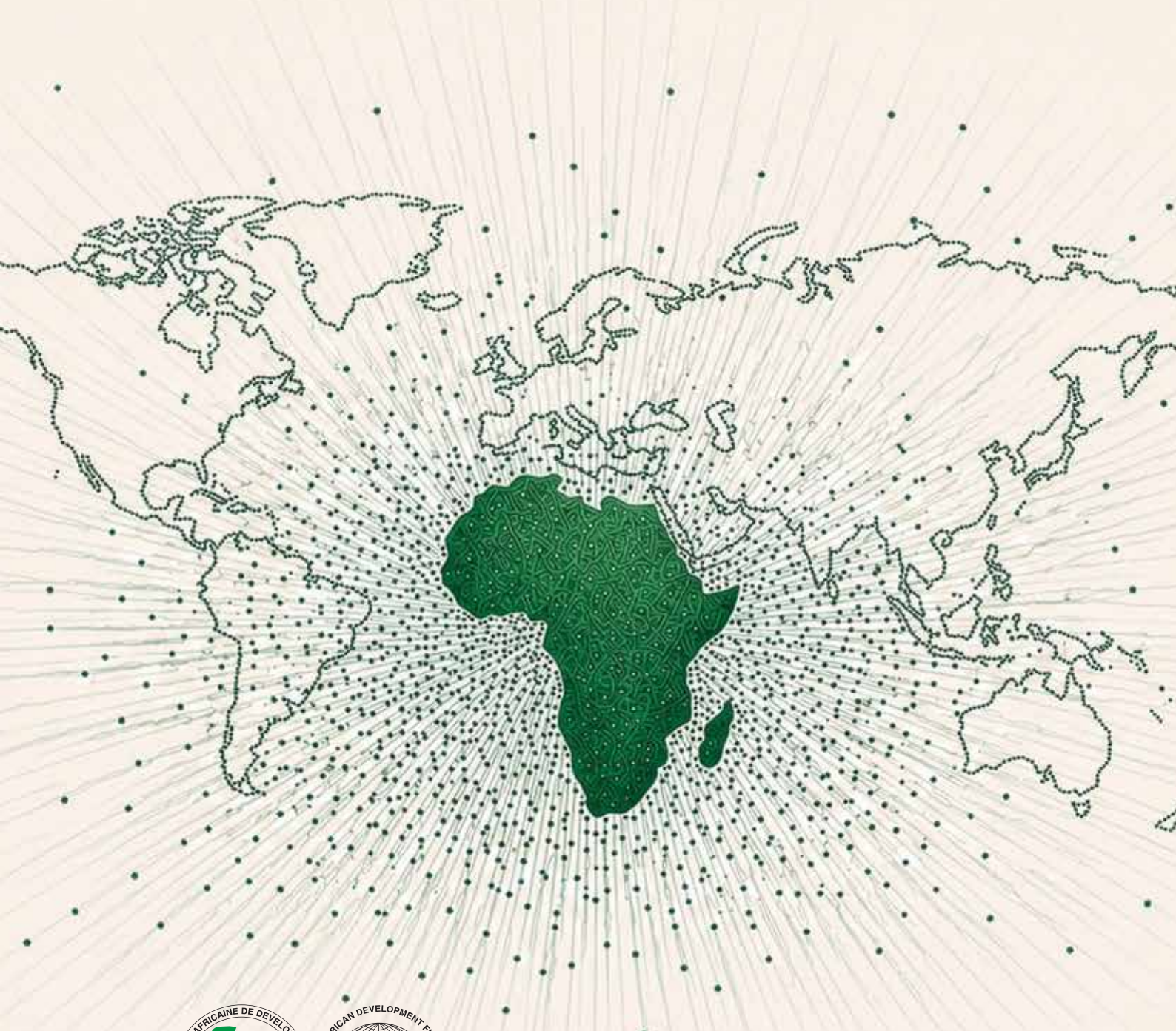


2026

아프리카 경제전망

분절화된 세계에서 아프리카 개발재원의 대규모 동원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CONTENTS

머리말	i
감사의 글	iii
주요 내용	1
개요	1
제1장: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및 전망	2
제2장: 아프리카의 성장 가속화 및 탄력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동원	9
제3장: 변화하는 세계 속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과 역량의 강화 및 통합	17
주석	23
참고문헌	24
그림	
1 2023~2027년 아프리카 지역 실질 GDP 성장률(퍼센트)	3
표	
1 2026~2027년 아프리카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5

머리말

현재 아프리카는 개발 여정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무역 긴장 고조, 기후 변화의 영향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국제 원조 및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글로벌 및 지역 분쟁의 심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 분쟁의 영향을 비롯한 지속적인 지정학적 분열 등 수많은 과제가 한꺼번에 닥치는 가운데 아프리카 경제는 계속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경제는 확장세를 이어갔으며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p 가까이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반복되는 세계적 및 지역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력은 공급망 교란, 긴축 재정 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분열된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성장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여전히 높으며, 개발 수요는 가용 자금을 앞지르고 있다. 그 결과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6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은 아프리카 개발재원 조달과 정책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분절화된 세계에서 아프리카 개발*

*재원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주제는 단편적인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의 재정, 금융, 천연,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려면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아프리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 가속화를 위해 향후 수십 년간 연간 성장률을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3.3%인 자본스톡 증가율을 2030년까지 연간 약 8.7%로 끌어올려야 한다. 자원 동원과 활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아프리카는 연간 최대 1조 4,3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개발재원 조달 부족분인 1조 3,00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국내 자원 동원이 있다. 납세 의무 준수, 행정, 정책 설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약 4,690억 달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지출의 효율성 개선 또한 중요하다. 현재 공공투자에서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40%가 넘으며, 이를 개선하면 매년 최대 2990억 달러를 성장 촉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의 제약은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알고 파편화된 시장은 국내 저축의 동원과 생산적인 투자로의 배분을 제한한다. 2026 아프리카 경제전망은 자본시장 심층화, 규제 개선, 통합 자본 시장 및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지역 통합을 통해 금융 아키텍처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

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다 결속력 있는 범아프리카 금융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된다.

보고서는 또한 양허성 금융의 감소와 무역 및 자본 흐름의 변화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핵심 광물, 기후 금융, 글로벌 기관 투자 등에서 새로운 기회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 강력한 제도,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혁신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과제는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여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길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합리적인 개발재원 제공, 아프리카 대륙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지식 상품 제작 및 보급,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소집력 활용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자체 금융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배치하기 위한 대륙 차원의 프레임워크인 '신 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와 같은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의 분열 해소, 위험 배분 개선, 조정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총재

감사의 글

2026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 보고서는 경제 거버넌스 및 지식담당 부총재실(Economic Govern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ECVP) 복합기구에서 작성했으며, 수석 경제학자이자 담당 부총재인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교수의 총괄 지휘/감독하고, 페르디낭 바쿠프(Ferdinand Bakoup), 알렉산드르 코포인(Alexandre Kopoin), 아다몬 무카사(Adamon Mukasa), 자스마 살림 아메드(Jasma Salim Ahmed), 아마 코피(Amah Koffi)가 지원했다.

보고서 작성은 거시경제정책·예측·연구부(Macroeconomic Policy, Forecasting and Research, ECMR)의 앤서니 심파사(Anthony Simpasa) 부장이 주도했다. 핵심 팀은 폴 음푸가(Paul Mpuga, ECMR.1 과장), 하메드 아무사(Hammed Amusa), 프랜시스 레니 앙귀요(Francis Leni Anguyo), 라시나 발마(Lacina Balma), 마틴 와풀라 난델렐가(Martin Wafula Nandelenga), 아시 오카라(Assi Okara), 케바 자메(Kebba Jammeh)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ECMR.1 소속이다. 제1장은 하메드 아무사와 마틴 와풀라 난델렐가가, 제2장은 라시나 발마와 케바 자메가, 제3장은 프랜시스 레니 앙귀요와 아시 오카라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조지 A. 카라라치(George A. Kararach), 마이클 마초코토(Michael Machokoto), 조세핀 가투아(Josephine Gatua), 오몰롤라 치

아조르 아모수(Omolola Chiazor Amousou), 블레즈 니마순(Blaise Gnimassoun), 리처드 두투(Richard Dutu), 모하메드 트라오레(Mohamed Traore), 자카리 세오고(Zackary Seogo), 토코 토니샤(Toko Tonisha)(이상 ECMR 소속), 세드릭 아킬 음벵(Cedric Achille Mbeng, 말리 국가 사무소장), 프레드 카반다(Fred Kabanda), 줄리어스 티구홍(Julius Tieguhong), 이노센트 오나(Innocent Onah)(이상 ECNR 소속)도 보고서의 여러 부문 작성에 참여했다. 행정 업무는 펠리시 존고 카보레(Félicie Zongo Kaboré), 하미다 리아히(Hamida Riahi), 마리 테레즈 은지(Marie Thérèse N'zi)가 담당했다.

세 개 장 작성에는 은행 외부 전문가들이 귀중한 기여를 했다. 제2장에는 마이클 단쿠아(Michael Danquah, 가나 경영 행정 연구소)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제3장은 스티브 케이 지-무게르와 교수(Steve Kayizzi-Mugerwa, 지지이카 앤 어소시에이츠 LLC)와 아피에스 살리수 교수(Afees A. Salisu, 이바단 계량경제학 및 응용연구센터)가 참여했다.

보고서의 통계 정보는 바바툰데 샘슨 오모토쇼(Babatunde Samson Omotosho) 부장이 이끄는 통계부(Statistics Department)에서 편집했으며, 사회·경제 통계과(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Division)의 쿠아 쿠아쿠(Louis Koua Kouakou), 아누 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 수마일라 카람비리(Soumaila Karambiri), 스테판 레지

스 하우후트(Stephane Regis Hauhouot), 슬림 제르비(Slim Jerbi), 베자예 코킬(Beejaye Kokil)이 지원했다.

또한 보고서는 은행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은행 내부에서는 바바툰데 삼손 오모토쇼(Babatunde Samson Omotosho), 에르베 로후에스(Hervé Lohoues), 시드웰 호브(Seedwell Hove), 사니 야야(Sanni Yaya), 오드리 베르디에-슈샨(Audrey Verdi-er-Chouchane), 페르디낭 바쿠프(Ferdinand Bakoup), 이야드 다우이(Iyad Dhaoui), 살마 에투하미(Salma Ettouhami), 아말 플림(Amal Phleem), 알렉산드르 코포인(Alexandre Kopoin), 아다몬 무카사(Adamon Mukasa), 자스마 살림 아메드(Jasma Salim Ahmed), 알랭 니유바웨(Alain Niyubahwe), 스테판 뮐러(Stefan Muller), 부미 카마라(Bumi Camara), 나디아 하멜(Nadia Hamel), 아누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 시투 이브라힘(Shittu Ibrahim), 딘틀레 모니아이(Dintle Monyai), 이브라힘 아데고케 아델레케(Ibrahim Adegoke Adeleke), 패트릭 칠레셰(Patrick Chileshe) 등이 의견과 제안을 제공했다. 외부 동료 검토자로는 크리스토퍼 애덤(Christopher Adam,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레

옹스 은디쿠마나(Léonce Ndikumana,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교수, 제라르 카프리오(Gerard Caprio, 윌리엄스칼리지) 교수, 드라마네 쿨리발리(Dramane Coulibaly, 리옹2대학교) 교수, 아비 케디르(Abbi Kedir, 아프리카경제연구 컨소시엄) 박사, 엘리야스 아웁(Elias Ayuk, 스텔렌보쉬대학교 지속가능성전환센터) 박사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 표지는 은행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관계부(Communication and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의 라에티티아 야티엔-아미게(Laetitia Yattien-Amigué), 저스틴 카바셀레(Justin Kabasele), 밀레 베렝제(Milé Bérenger)의 일반 디자인에 기반했다. 편집, 번역, 레이아웃은 브루스 로스-라슨(Bruce Ross-Larson)이 이끄는 커뮤니케이션 디벨롭먼트 인코퍼레이티드(Communications Development Incorporated) 팀이 담당했으며, 조 카포니오(Joe Caponio), 마이크 크럼플라(Mike Crumplar), 크리스토퍼 트로트(Christopher Trott), 일레인 윌슨(Elaine Wilson)이 참여했고, JPD 시스템즈(JPD Systems)와 인더스트리 아라빅(Industry Arabic)이 번역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

개요

아프리카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3.8%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재원 조달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연간 1조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¹ 이러한 격차는 부분적으로는 낮은 국내 자원 동원률, 취약하고 파편화된 국내 금융 시스템,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낮은 외부 자금 유입에 기인한다. 아프리카의 GDP 대비 세수 비율 2000년대 약 23~30%에서 2024년 16.2%로 감소했는데, 이는 세수 징수가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빈약한 세원, 미흡한 규정 준수, 면세, 제한된 납세자 범위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소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민간 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은 GDP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20~2024년 평균 23.7%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51.9%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주식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시가총액이 6배 가까이 증가하고 2024년 GDP의 약 40%인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²

그동안 아프리카는 전쟁, 금융 위기, 원자재 가격 폭락, 무역 긴장,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주요 글로벌 충격을 견뎌냈다. 또한 내전, 국가 간 침입, 취약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도 겪었다.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회복해왔지만, 이러한 충격의 빈번한 발생으로 경제 변화를 촉진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기를 누리지 못했다. 주요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1인당 실질 GDP의 저성장 기간이 길어졌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걸프전과 관련이 있다.

전쟁, 분쟁, 무역 긴장으로 촉발된 주요 글로벌 충격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세계의 지정학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아프리카의 경우 지정학적 분열과 이에 따른 글로벌 정책 방향의 변화는 개발재원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가 자체 개발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재원 동원이 필수적이다. 2026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에서는 아프리카의 최근 경제 성과와 중기 전망을 살펴보고, 성장 가속화 및 탄력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옵션을 강조한다. 또한 갈수록 분열되는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 아키텍처를 강화 및 통합하는 개혁을 권고한다.

제1장: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및 전망

성장 성과 및 중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 경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증가, 코로나19 확산,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분열, 금융 여건의 불안정성, 기후 위험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은 아프리카의 회복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25년에는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개선되었다.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3.5%에서 2025년 4.4%로 증가하여 아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앞질렀다. 농업 생산량 증가, 거시경제 정책 지원,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미국 달러 약세는 아프리카 경제 원조 감소와 무역정책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타난 2025년의 강력한 성장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충격에 대한 아프리카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특히 아프리카 54개국 중 36개국이 2025년에 2024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22개국은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에 4.2%로 둔화된 후 2027년에는 2025년과 같은 4.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GDP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은 주로 중동에서 계속되는 분쟁의 영향에 기인한다. 이 충격이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망 교란의 지속 기간과 글로벌 에너지 및 비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26년과 2027년의 성장 전망은 현재의 글로벌 충격이 2~3개월 동안만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5년 대비 0.2%p, 1월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 대비* 0.3%p 낮아질 수 있다. 분쟁이 3~6개월 지속된 뒤 점진적으로 긴장이 완화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한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아프리카의 1인당 실질 GDP는 평균 2.1% 성장하여 2024년의 1.1% 대비 개선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2026년에는 1.9%로 소폭 하락한 후 2027년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3.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집중도가 높다. 지니계수 중위값은 38.5로 추정되며, 알제리의 27.6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63.0까지 다양하다. 소득 상위 10%가 인구 전체 소득의 40~6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10~15%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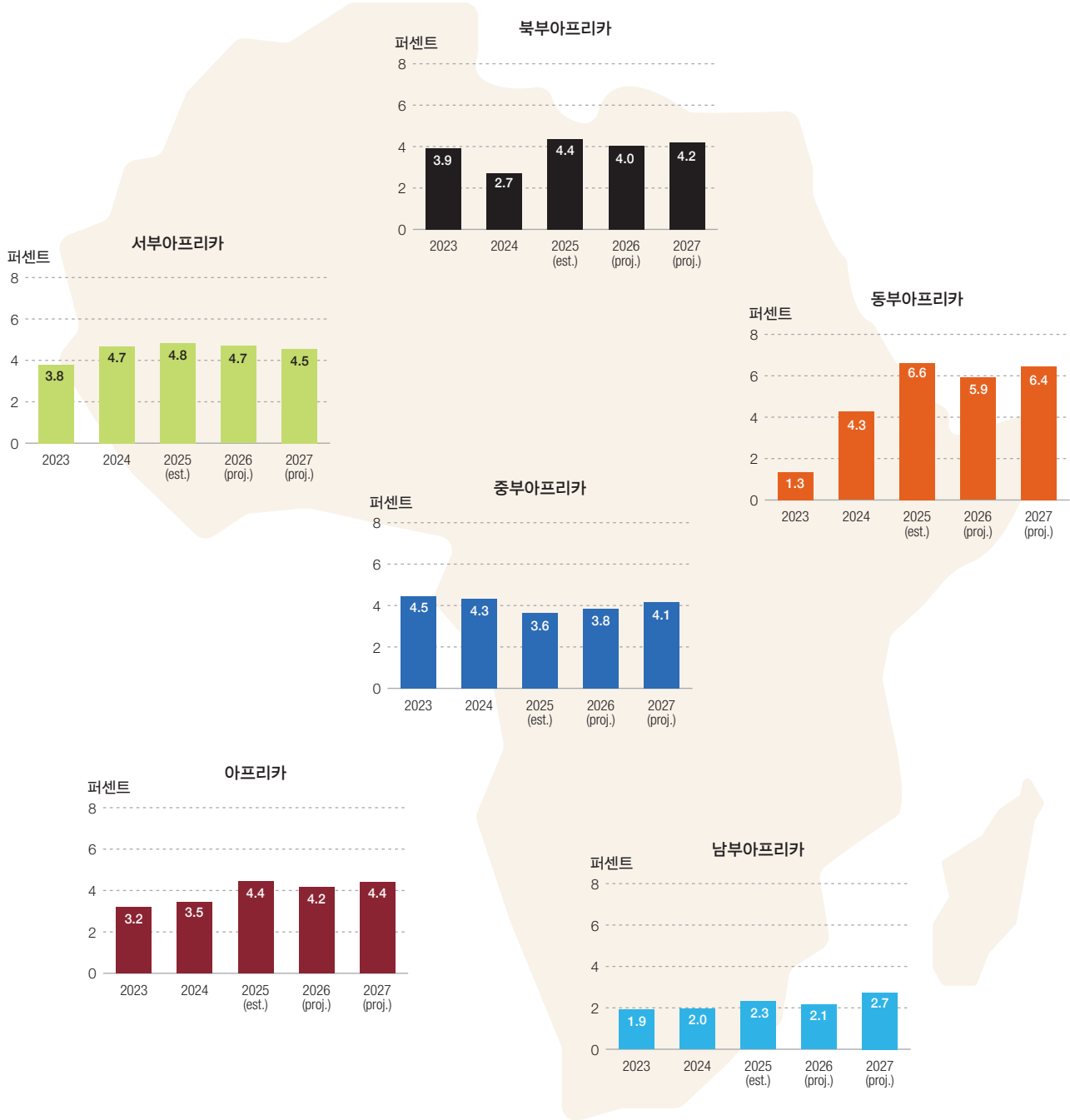
중동 지역 분쟁의 영향은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중부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5년 3.6%에서 2026년 3.8%, 2027년 4.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이들 국가의 성장은 특히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2026년에는 7개국 중 3개국에서 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동부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5년 약 6.6%에서 2026년 5.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수입 비용 상승, 식량 안보 취약성 심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공급 충격의 영향이 사라지고 거시경제 정책과 주요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 다각화를 위한 지속

2025년에는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개선되었다

그림 1 2023~2027년 아프리카 지역 실질 GDP 성장률(퍼센트)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통계.

적인 노력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2027년에는 성장률이 6.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부아프리카의 2025년 성장률은 4.4%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4.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중단은 아프리카의 대중동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집트, 모로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튀니지 등 석유 제품 순 수입국의 비료 투입 및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이 지역의 관광 산업도 걸프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7년에는 공급망 교란이 완화되지는 전제 하에 4.2%의 성장이 예상된다.

서부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5년에 4.8%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4.7%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2027년에는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는 견고한 농업 생산량, 농업 가공 가치사슬의 심화,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에 기인한다. 광업 및 탄화수소 생산의 확대와 특히 건설 부문의 민간투자 지출 개선은 이 지역의 성장 전망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남부아프리카의 2025년 성장률은 광업 활동과 농업 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2.3%로 추정된다. 2026년에는 현재의 공급망 충격과 중동 분쟁에 따른 국내 경제 활동의 차질로 인해 성장률이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공공 부문 자본 지출, 농업 생산량, 수출의 증가 또는 예상 증가를 반영하여 성장률이 2.7%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6년 평균 10.4%(2026년 1월 MEO 보고서 대비 0.9%p 상승)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8.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5년의 13.7%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 생산량 증가와 지난 몇 달간의 긴축 통화정책의 혜택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인플레이션은 26개국에서 5%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4월 28일 기준, 27개국의 통화는 2월 27일 기준선 대비 미국 달러화에 대해 절하된 상태였다.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은 2025년에 금리를 인하하여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의 전반적 개선을 시사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준금리는 평균 1.33%p 인하되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금리는 실질 기준 평균 2.8%로 산출되었다. 중동 분쟁이 시작될 당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 통화정책 완화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2025년 전체 평균 재정적자는 2024년 GDP의 4.8%에서 4.9%로 소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이다. 2025년 국제 유가가 14% 하락하면서 석유 수출국의 재정적자 폭은 2024년 5.7%에서 GDP 대비 6.4%로 확대되었다. 이는 유가 변동에 대한 재정 상태가 경기 순응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칭성은 현재의 유가 상승이 순수출국의 수익을 강화하고 2026년 평균 재정 상태를 GDP의 5.6%로 개선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전체 평균 재정적자가 2026년 GDP의 4.8%, 2027년 4.6%로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순 석유 수입국은 고유가로 인해 수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다른 자원 집약적 및 비자원 집약적 경제로 구성된 순 석유 수입국은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다른 자원 집약적 경제에서는 재정적자가 2025년 3.7%에서 2026년 4.0%로, 비자원 집약적 경제에서는 2025년 4.2%에서 2026년 4.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순 석유 수입국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적 위치는 단기적으로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충격과 무역 불균형에 취약한 상태이다. 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2024년 1.7%에서 2025년 1.2%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미국 달러 약세와 내수 침체에 따른

표 1 2026~2027년 아프리카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수지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수지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알제리	4.1	4.2	3.3	2.6	-1.4	-3.4	-13.3	-14.3	라이베리아	5.0	5.3	8.2	6.7	-14.8	-13.2	-2.7	-2.4
앙골라	2.9	3.3	17.7	15.3	3.4	1.0	-1.1	-2.1	리비아	6.5	4.3	2.5	2.2	6.1	3.5	2.2	1.6
베냉	6.6	7.1	2.5	2.1	-5.8	-5.2	-2.7	-2.4	마다가스카르	3.0	4.5	9.0	6.5	-7.5	-6.0	-4.4	-3.8
보츠와나	1.2	3.5	6.3	4.7	-6.7	-4.4	-8.9	-8.0	말라위	2.3	3.3	24.6	18.7	-17.5	-15.3	-10.7	-10.0
부르키나파소	5.4	5.8	2.1	1.7	-3.0	-2.4	-4.2	-3.8	말리	6.0	5.9	3.1	2.5	-5.8	-5.0	-3.2	-2.9
부룬디	4.3	4.6	22.1	13.7	-6.3	-5.4	-3.6	-3.1	모리타니아	4.4	4.7	2.5	2.6	-8.6	-6.7	-0.9	-0.5
카보베르데	4.7	5.0	2.6	2.3	1.1	-1.8	-1.3	-1.0	모리셔스	2.8	3.8	6.0	3.9	-7.0	-4.3	-7.3	-5.4
카메룬	4.0	4.1	3.5	2.7	-4.1	-3.9	-1.9	-0.7	모로코	4.2	4.3	2.4	2.3	-3.5	-3.4	-3.7	-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9	3.9	3.9	2.9	-6.6	-5.1	-4.0	-3.4	모잠비크	2.1	3.5	6.2	5.2	-28.8	-32.7	-6.4	-7.0
차드	3.6	3.5	4.0	3.3	-3.0	-3.9	-2.2	-2.8	나미비아	2.0	3.5	6.1	4.5	-16.4	-12.6	-6.0	-4.8
코모로	3.4	4.0	3.7	2.6	-5.9	-5.0	-2.7	-2.4	니제르	6.6	6.4	3.8	2.3	-6.3	-5.7	-3.6	-2.7
콩고	3.3	3.4	3.4	3.1	2.9	2.6	4.3	3.9	나이지리아	4.1	3.7	16.2	13.0	5.8	4.1	-2.3	-2.5
콩고민주공화국	5.0	5.6	6.4	5.4	-4.2	-2.8	-3.4	-2.1	르완다	7.0	7.4	5.6	4.8	-14.9	-14.2	-6.0	-5.6
코트디부아르	6.2	6.5	2.6	2.0	-2.0	-2.5	-3.0	-3.0	상투메프린시페	2.4	3.2	11.5	8.6	-6.4	-5.0	-1.4	-1.6
지부티	6.5	6.8	2.4	1.7	14.1	14.6	-1.9	-1.0	세네갈	5.2	5.9	2.3	1.2	-8.9	-5.7	-8.1	-7.2
이집트	4.0	4.3	14.7	14.6	-4.6	-4.5	-7.0	-6.4	세이셸	3.1	3.4	1.8	1.9	-5.6	-4.6	-1.2	-0.7
적도기니	-1.7	-1.4	3.1	2.9	-2.4	-3.3	-2.1	-3.4	시에라라온	4.2	4.8	9.2	7.2	-5.9	-4.6	-4.3	-2.8
에리트레아	2.8	3.2	5.1	4.9	10.1	12.4	-3.3	-2.9	소말리아	3.1	3.4	5.2	4.1	-9.9	-8.8	1.1	-0.7
에스와티니	4.0	3.5	4.0	3.5	-1.0	-1.2	-6.4	-5.4	남아프리카공화국	1.2	1.6	3.9	3.6	-1.4	-1.6	-5.1	-4.7
에티오피아	7.8	8.5	14.1	8.8	-1.1	-0.9	-2.4	-1.9	남수단	22.0	6.8	21.8	16.8	-0.4	-1.5	1.6	3.0
가봉	2.7	3.1	3.1	2.3	1.1	-2.4	-4.4	-5.7	수단	2.1	3.2	78.3	51.3	-5.1	-4.4	-2.9	-2.4
감비아	4.9	5.0	5.2	4.9	-5.6	-4.5	-1.7	-1.2	탄자니아	5.4	6.1	3.8	3.7	-3.0	-2.2	-3.4	-3.5
가나	5.0	5.4	9.0	7.2	3.0	2.7	-2.6	-2.2	토고	5.9	6.2	2.1	1.6	-3.2	-2.5	-2.9	-2.6
기니	9.3	9.8	4.2	3.6	9.6	9.2	-3.5	-3.7	튀니지	2.1	2.8	5.7	5.4	-5.3	-4.7	-6.1	-5.6
기니비사우	4.9	5.1	2.5	2.2	-5.2	-3.4	-3.6	-3.2	우간다	6.2	8.0	6.0	4.5	-5.6	-3.7	-6.9	-5.9
케냐	4.6	4.7	5.4	4.8	-2.8	-2.2	-6.1	-5.8	잠비아	5.0	6.3	9.3	7.2	0.8	3.1	-2.7	-1.9
레소토	0.5	1.8	5.7	4.3	-8.7	-4.5	2.1	3.1	짐바브웨	4.3	4.5	14.7	10.1	-0.2	1.3	-0.7	-0.5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통계.

주석: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퍼센트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퍼센트로 표시됨. 이 히트맵은 선별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각국의 전망을 나타냄. 국가들은 세 가지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짐: '녹색'은 우수한 성과, '노란색'은 보통 성과, '빨간색'은 저조한 성과. 실질 GDP 성장률 5% 이상은 녹색, 0-4.99%는 노란색,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인플레이션율 5% 미만은 녹색, 5-9.9%는 노란색, 두 자릿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경상수지 흑자는 녹색, 5% 미만 적자는 노란색, 5% 이상 적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재정적자 3% 미만은 녹색, 3-5%는 노란색, 5%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됨.

수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수입 증가분이 상쇄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2026년 GDP의 1.7%, 2027년 1.9%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가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 전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024년 본국 송금액은 2023년 916억 달러에서 1,046억 달러로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554억 달러에서 97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포트폴리오 순투자자는 16억 달러 유출에서 229억 달러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중한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공적개발원조(ODA)도 617억 달러에서 659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요 양자 공여국의 원조 삭감을 다자 원조 증가가 상쇄한 결과이다. 공여국들이 국내 및 전략적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자원을 재할당함에 따라 양자 원조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자 원조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부채 취약성이 악화되고, 포트폴리오 흐름이 역전될 위험이 높아졌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아프리카 이주민의 14%를 차지하는 중동의 노동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로의 송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개발재원 조달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화한다.

아프리카의 중기 거시경제전망은 대내외적 요인의 전개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석유 및 비료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아프리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어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국내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해 부채 취약성이 악화되고 재정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 압박에 직면해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총 공공부채 총액은 대규모 공공지출 수요로 인해 2020년 1조 6,000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9,000억 달러로 연평균 약 4.4% 증가했다. 긍정적인 측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2024년 평균 63.9%에서 2025년 62%로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61.4%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의 감소는 여러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의 반등과 재정 통합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채 구조의 변화로 인해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켜 재정 여력을 더욱 제약하고 주요 인프라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 대외 채무 상황에 투입되는 정부 수입의 비중은 2017년 23.7%에서 2024년 31%로 증가했다.

단기 정책 제언

전략적 통화정책과 외환 정책 관리 강화를 통해 여러 충격의 영향을 완화한다.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중한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와 협력하여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인상의 2차 영향이 누적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장조정형 환율 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및 구조적 펀더멘털을 반영한 질서 있는 조정을 가능하므로 이는 물가 및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성장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중한 재정정책 시행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이고 사업 비용을 낮추며 빈곤층 및 기타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한다. 각국 정부가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인상이 가장 취약한 가계와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기조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재정정책 조치와 전략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프리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회복력을 저해할 수 있는 고비용 보조금과 전면적인 유류세 면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한, 지속되는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표적화된 사회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이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고비용 보조금을 통한 광범위한 가격 억제와 재정 방만 운영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석유 및 가스 초과 수익을 활용하여 충격을 완화한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아프리카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석유 및 가스 생산국에게는 글로벌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가격 호황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국부펀드나 기타 경기대응적 완충장치에 투입하여 전후 예상되는 가격 조정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은 위기로 인한 혼란을 관리하고 경기 침체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잠재력(특히 석유와 가스)이 큰 국가는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인적 및 물적자본에 투자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비석유 부문의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외부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투자 금융에서 더 많은 비중을 확보하려면 특히 데이터 센터와 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흥 부문에서 더 많은 흡수 역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경제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제정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심화 및 확대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흐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비용이 큰 역전을 피할 수 있다. 본국 송금 유입이 압박을 받으면서 각국은 디아스포라 채권과 같은 표적화된 수단을 활용하고 송금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한다. 위기에 취약한 성장 구조를 고려하여 세원 확대와 세수 징수 효율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세무 행정을 디지털화하면 세수 징수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된 부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발적인 납세 준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내 재정 사회계약을 강화한다. 파트너의 우선순위 변화와 국가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제 원조 흐름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재원 조달의 토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원에서 안정적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 자율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용에 기반한 국가와 시민 간의 강력한 재정 사회계약이 수반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선제적인 위기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반복되는 글로벌 충격이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국가, 지역, 대륙 차원에서 시행되는 선제적 위기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는 우선 공동 연료 조달과 긴급 식량 회랑을 통한 비상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물류적으로 가능한 경우 연료, 식량, 비료의 조달처를 다각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임시 유동성 공급을 제공해야 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아프리카의 개발금융기관, 기타 개발 파트너는 긴급 예산 지원, 석유 수입국의 주요 수입품(식량, 연료, 비료) 조달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IMF 프로그램 참여국에 추가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부 신용공여와 같은 경기대응적 수단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 대응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면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 완충장치를 제공하여 중장기적 영향을 상쇄하고 경제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자주권을 강화한다. 아프리카연합(AU) 체제하에서 각국은 지정학적 사안인 보편적 인권, 평화와 안보, 국제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프리카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정치 및 경제 역량을 강화를 위한 목적의식 있는 단결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글로벌 투자
금융에서 더
많은 비중을
확보하려면
특히 데이터
센터와 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흥 부문에서
더 많은 흡수
역량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원과
가스와 같은
전환 연료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는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맞추고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대체 친환경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을 조정한다. 각국은 금융 및 통화 정책 조치를 재무, 농업, 에너지, 무역 등 관련 부처와 기관 전반에서의 이행 조치와 함께 기관 간에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발 파트너는 아프리카 국가에 맞게 정책 대응을 조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된 기술 지원과 정책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 정책 제안

거시경제 완충장치와 대외 회복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소 3~4개월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구축하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며, 외부 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환율 압력을 완화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억제하며,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생 에너지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재생 에너지원과 가스와 같은 전환 연료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는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맞추고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대체 친환경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A)에서 선정된 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면 시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INGA 댐과 같은 수력발전 댐 건설, 데저트 투 파워(Desert to Power), 미션 300(Mission 300)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의 이행 가속화, 지역 정유 및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통한 아프리카 내 에너지 시장 강화가 포함된다. 국경을 넘는 송전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가스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면 아프리카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전기차와 같은 도시 공공 인프라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면 연료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복되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과 무역을 강화한다. 사람, 상품,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표적 산업정책, 통합된 관세 규정,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전면적 이행, 전략적 수출 촉진은 모든 부문에서 수출 다변화와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지역 가치사슬과 아프리카 내 무역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략적 양자 및 다자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대외시장을 확대하여 외부 취약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글로벌 자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대 조달 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비료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석유, 가스, 비료의 지역 및 역내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식량, 핵심 중간재 등의 품목에 대한 역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비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역 물류, 운송 회랑, 항만 효율성 개선, 디지털 무역 촉진에 투자하여 비용을 절감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정책 개혁을 심화하여 제도적 효율성과 무역 성과를 개선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행정 역량에 부합하는 고수익 조세수단을 도입하는 조세정책 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부합하도록 정책과 절차를 조화시켜 재정 및 관세 체계를 지역 의제에 맞게 조정하고 다중/이중 과세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리더십, 인적자원 현대화, 성과 관리, 서비스 문화, 책임에 투자하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입 행정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불법적인 금융 흐름, 부패, 잘못된 위험 가격 책정, 비생산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을 억제하여 세수 유출을 줄여야 한다. 또한 생산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공공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 및 통합하여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국내 자본 동원을 확대하고 충격 흡수 역량을 강화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프리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 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 NAFAD는 2026년 4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출범했으며, 아프리카에 보다 회복력 있고 자립적이며 개발 지향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아프리카 금융 생태계에서 관리 중인 4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개발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연합(AU)은 증가하는 부채 차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금융 안정 메커니즘(African Financing Stability Mechanism)의 완전한 이행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아프리카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아프리카 통화연구소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위험 등급에서 나타나는 정보 편향을 해소하기 위한 아프리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도 가속화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프리카연합(AU)과 지역경제공동체는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무역 회랑 주변 공급망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평화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에서 지역 경제 통합과 무역 심화, 정치적 통합과 평화 증진은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제2장: 아프리카의 성장 가속화 및 탄력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동원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주체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지난 20년간 평균 3.8%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청년 노동 연령 인구의 급속한 확대, 은행 및 금융 분야의 디지털 도입 심화, 거시경제 관리 개선, 지속적인 지역 통합은 성장 모멘텀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경제 성장은 비교적 견고했지만 고르지 못했다. 또한 증가하는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가 덜 진행된 지역으로, 보편적인 발전에 필요한 7~10%의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³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증가하는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원보다 지출 압력이 더 커지는 개발재원 조달 격차가 있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방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 의제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갈수록 약화되는 재정적 제약이다.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 양허성 자금의 감소, 인프라 투자, 기후 적응, 에너지 전환, 사회보호, 인구 확대와 관련된 지출 압력의 증가는 모두 재정 여력을 압박하고 있다. 2024년 부채 상환액은 정부 수입의 약 3분의 1로 추정되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사회 부문 지출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부족, 위험 회피 성향의 증가, 지속적으로 높은 국부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비용과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동시에 글로벌 분절화와 다극화로 인해 금융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공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방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급망 재편, 원조 및 자본 흐름의 분열, 지정학적 긴장 고조(선진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 포함)는 글로벌 생산, 무역, 금융 패턴을 재편하고 있다. 무역 긴장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입 비용을 높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감소시켰다. 아프리카가 2024년과 2025년에 회복력을 보이고 수출이 개선되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의 불확실성, 공적개발원조(ODA) 감소, 여러 충격의 영향, 글로벌 유동성 긴축은 대외 자금 조달 전망의 위험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새로운 기회도 창출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친환경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 탄소 및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 글로벌 기관자본은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대안을 제시한다. 혼합 금융의 혁신, 디아스포라 금융, 보증 체계와 같은 위험 완화 수단, 인프라 자산 재활용은 금융 비용을 낮추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분열된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과 심도 있고 잘 규제된 통합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과제는 점점 더 국내 자본을 동원하고, 유지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고성장 경험은 지속적인 자본 심화, 인적자본 업그레이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지속적인 구조 혁신, 대규모 일자리 창출, 빠른 빈곤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공지출의 비효율성, 취약한 거버넌스 및 공공투자 관리는 동원된 자원의 개발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면 아프리카 개발에 필요한 연간 최대 1조 4,3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⁴

대규모 자본 동원 및 사용 효율성 개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려면 아프리카의 국내 자원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명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세수노력은 지난 수십 년 간 감

소했다. 아프리카의 미개발 국내 세수 잠재력은 각국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에 수렴할 경우 연간 약 4,690억 달러(GDP의 14.4%)로 추산된다.⁵ 부가가치세(VAT)는 약 1,408억 달러로 추가 세수 잠재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잠재력 또한 상당하다. 이들 기관은 4조 달러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자산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지만, 이 중 아프리카의 인프라 및 기타 생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비율은 3% 미만이다.⁶ 디아스포라 송금은 규모가 크지만 활용도가 낮은 자금원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과 기관 자본과 디아스포라 저축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투자 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

조세정책, 규정 준수, 관리의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면 높은 세율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아프리카는 법정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징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원 동원의 미개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개선 효과는 조세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고 규정 준수 및 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가가치세 규정 준수 강화, 소비세 및 채납 관리, 재산세 확대, 법인세(특히 채굴업) 과세 강화,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수용 등 국내 세수 증대를 위한 기회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약 1,408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아프리카의 현재 징수액의 두 배 이상으로 가장 큰 추가 세수원이 될 수 있다.⁷

직접세는 세수 확대 여지가 크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에서 각각 약 833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규정 준수 격차를 좁히고,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해결하며, 고소득 법인(고액 자산가 및 대기업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 관세(481억 달러), 소비세(399억 달러), 기타 국내 세금(505억 달러), 기타 관세 수입(235억 달러) 등 무역 및 소비 관련 세금에서 보완적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⁸ 이러한 잠재적 세수 확대는 간접세 강화, 직접세 성과 향상, 전반적인 세무 행정 효

아프리카는
법정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징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원 동원의
미개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율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세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수 잠재력을 지속적인 재정 능력으로 전환하려면 일관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세수 동원은 불균형적인 세금 부담, 기본 재화 및 서비스 비용 증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 등 추가 세수 조치의 부작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뒷받침되는 조세 수단과 비조세 수단을 상호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조세 수단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재산세 개혁과 함께 디지털 경제 및 통신 부문에 대한 과세 확대 조치, 세관 및 국내 세무 행정 현대화 등이 있다. 비과세 수단은 국영 기업의 배당 확대, 광물 로열티 제도 개선, 사용자 수수료 간소화, 천연자원 수입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표적 보조금과 사회보호 제도와 같은 형평성 안전장치는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자금 동원 개혁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원 확대는 국내 세수 동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비효율적이고 목표가 불분명한 면세 및 인센티브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설계를 개선하며, 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활동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총 세수는 2000년대 초반 약 1,000억 달러에서 2020년대 초반 약 4,50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⁹ 광범위한 면세 및 인센티브, 빈약한 세원, 취약한 규정 준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행정 비효율성 등 구조적 제약이 세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표적 개혁은 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원하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강화하면 공중 보건 혜택과 함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비세는 국내 세수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류세가 징수액의 약 40.2%를 차지하고 주류(29.6%), 담배 제품(15.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GDP의 0.8% 미

만인 재산세는 아프리카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성장 친화적인 세원이다. 토지 등록, 부동산 평가, 지방 행정 역량 개선을 통해 재산세 시스템을 강화하면 국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¹⁰

납세 준수를 개선하는 것은 아프리카 국가 전반의 세수 동원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주요 조치로는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 구축,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납세자 전담 사무소의 효율화,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납부,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¹¹ 그러나 행정 역량의 제약은 여전히 심각하다. 2023년 감사관 1인당 평균 납세자 수는 2022년에 비해 2.4% 증가한 11,173명으로, 많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되고 보다 표적화된 위험 기반 감사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감사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 47개 회원국의 평균 감사 징수율(부과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3년 55%로 상승했다. 특히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는 100% 이상의 감사 징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강력한 사후 징수 체계를 보여주었다.¹²

아프리카의 국내 세수 동원은 조세를 넘어 수수료, 부담금, 공공자산(국영기업 포함), 천연자원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수입(NTR)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명목상 비과세 수입(보조금 제외)은 원자재 가격 호조, 자원 임대료 징수 개선, 사용자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2000년 약 451억 달러에서 2012년 최고치인 1,617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929억 달러로 떨어졌다. NTR을 강화하려면 특히 에너지, 수도, 교통, 도시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 책정 및 세수 징수를 개선해야 한다.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재무 감독을 강화하고, SoE 인센티브를 재정 목표에 맞추면 책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 에너지, 광

토지 등록,
부동산 평가,
지방 행정 역량
개선을 통해
재산세 시스템을
강화하면
국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업, 통신 분야의 로열티 및 이익 공유 계약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공 수익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제약 요인은 투자의 양과 실행의 질 모두에 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공공투자의 비효율성은 약 41%로 추정되며, 지출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흡수 역량의 제약은 빠른 확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공공투자가 GDP의 7~10%에 가까워지면 비용 압박과 실행 격차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¹⁴ 따라서 프로젝트 선정, 조달, 유지보수, 다년간의 재정 계획 및 감독을 개선하는 것은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흡수 역량이 제한된 저효율 환경에서는 공공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비용 초과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할당된 자원이 효과적인 인프라와 생산적인 자산으로 더 많이 전환되도록 하면 기존 지출 범위 내에서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추정에 따르면 효율성 격차를 해소하면 연간 약 2,99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재정 제약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절감액은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연간 4,020억 달러의 재정 격차의 약 75%에 해당하며, 현재 교육 지출인 약 1,060억 달러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¹⁵

민관협력 자금 조달을 위한 의제 확대

재정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은 민관협력(PPP)을 통해 투자에 기여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잘 선정된 공공투자는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투자 1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약 1.40달러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2024년 아프리카의 인프라 민간 참여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566억 달러,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213억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¹⁶ 아프리카의 투자 수준은 남아시아보다 높고 유럽 및 중앙

아시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EAP 및 LAC와의 격차는 민간 인프라 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미개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관협력 도입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아프리카 법률지원기구(ALSF)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4개국 중 42개국이 민관협력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 약 43%는 여전히 민관협력 전용 법률이 아닌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민관협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저해한다.¹⁷ 아프리카에서 민관협력을 확대하려면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 위험 식별, 가치 대비 비용 검증, 재정적 수용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

아프리카 경제에서 비공식적 부문의 규모는 자원 동원을 제약한다. 평균적으로 비공식 부문은 아프리카 GDP의 거의 40%를 차지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50~60%에 달할 수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에서 GDP가 1%p 증가할 때마다 세수는 GDP의 0.17~0.4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비공식성은 또한 소득이 은행권 밖에 머물러 있고 기록이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담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공식화는 상당한 성장과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비공식 부문 규모가 10%p 감소하면 연간 GDP 성장률이 약 1~2% 증가하고, 비공식 활동을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1,25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¹⁹

지역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장기 자본 동원 은행, 연기금, 국부펀드(SWF) 등 아프리카의 국내 금융기관은 최대 4조 달러로 추정되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

아프리카에서
잘 선정된
공공투자는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투자
1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약
1.40달러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중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인프라에 투자는 비중은 2.7% 미만이다.²⁰ 규제, 시장,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 이러한 자원을 인프라 금융에 투입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활용하고 지역 자본 시장과 금융 통합을 심화하면 장기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기금은 장기 부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납입금, 예측 가능한 지급금 프로필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인내자본)에 매우 적합하다. 아프리카의 연기금 자산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산 배분 방식이 혁신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연기금의 배분은 매우 불균형하지만, 총 연기금 자산이 2,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포트폴리오 배분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²¹ 국채와 단기 은행 예치금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에 대한 노출은 적고 인프라에 대한 비중은 최소화되어 있다. 일부 아프리카 시장에서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20년 말 기준 운용 자산의 0~2.7% 수준에 불과했다.²²

강력한 건전성 규제 하에서 연기금을 아프리카에 투자한다면 자산의 일부만 재배분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프리카의 6대 연기금 시장에서 매년 연기금 자산의 1%를 국내 장기 투자(인프라, 주택, 기후 프로젝트)에 추가로 할당하면 2050년까지 누적 약 1조 7,00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다.²³ 국가 간 경험은 설계상 두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허용 자산군을 확대하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 표준화된 금융상품, 신용보강 장치, 투명한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규제상 여유는 활용되지 못한다. 둘째, 신탁 및 위험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가능한 국내 자산의 부족이 핵심 제약 요소이다. 규제 및 건전성 체계, 자본시장, 프로젝트 준비, 거버넌스 표준을 강화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자본 동원을 위한 연기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부펀드는 해외 편중에서 벗어나 전략적 투자 창구로 전환할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180개 이상의 펀드가 15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장기 자본 풀이다. 이를 통해 국부펀드는 민간 금융의 장기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아프리카 국부펀드는 해외 주식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며, 선진 시장의 표준을 벤치마킹한 기존의 60/40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²⁴ 이러한 해외 편중은 위험 분산 목적뿐 아니라, 취약한 국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미발달한 자본시장, 거시경제 변동성을 반영한다.²⁵ 하지만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부펀드의 73% 이상(15개 중 11개)이 국내 투자를 통해 개발의 무의 요소를 충족했다고 답했다.²⁶

정책 개혁은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용 개발 창구, 명확한 투자 규칙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잘 구조화되고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갖춘 국가는 신흥 시장과 국내 투자에 국부펀드 배분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인프라 펀드, 건전하게 운영되는 민관협력, 공동투자 플랫폼,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투자기구 등 투자 가능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 배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제도적 구조를 갖춘 아프리카 국부펀드는 장기 자본을 동원하고 민간 금융을 보완하며 재정적으로 제약이 있고 충격에 취약한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대형 기관(연기금 및 국부펀드 포함)의 대차대조표를 국가 발전 우선순위에 맞추려면 규제 및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인프라를 하나의 투자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와 건전성 규범에 부합하는 최소 국내 한도 배분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다.

디아스포라 자본 활용

2000년 이후 평균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프리카로의 송금 규모는 2030년 1,790억 달러, 2040

아프리카의
연기금 자산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산
배분 방식이
혁신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자본은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 및 투자
의사 결정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다

년 4,330억 달러, 2050년 1,0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로의 자금 유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비해 변동성이 3배 정도 적다.²⁷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송금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제도적 틀은 성장 촉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디아스포라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수단의 명확성, 법적 확실성, 거래 비용 감소, 공공 인센티브의 존재가 디아스포라 재정 동원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전담 위원회인 나이지리아 디아스포라 위원회(Nigerians in Diaspora Commission)를 설립해 국가와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제도화했으며, 특별히 고안된 금융 상품을 통해 공식 채널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디아스포라 송금 상위 5개국의 평균 실적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연간 921억 달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²⁸

아프리카의 천연자원 자산 활용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자본은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 및 투자 의사 결정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다.²⁹ 자연자본은 많은 국가에서 전체 부의 30~50%를 차지하며,³⁰ 2020년에는 약 7조 6,000억 달러, 즉 연간 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¹ 탄소시장, 바이오 크레딧, 바이오=디지털 경제의 등장은 천연자원 회계 개선과 결합하여 새로운 자금을 동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생태적 전환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자연자본을 국가 회계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천연자원 추출 중심 모델 그 이상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부가가치, 하류 공정, 생태계 기반 생산 시스템에 중점을 두면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

분열된 세계에서 글로벌 민간 자본 유치

글로벌 분절화와 다극화의 출현으로 국제 금융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 선진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함께 여러 위험과 충격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생산, 무역, 금융 패턴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민간 자본과 혼합 금융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에너지, 운송, 디지털 인프라, 산업 등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험 완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정책 및 부문의 신뢰성, 예측 가능한 규칙, 집행 가능한 계약, 신뢰할 수 있는 관세 또는 사용자 수수료부를 비롯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 제안

대규모 재정자원 동원 및 활용 개선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순서로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재정 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역량 제약, 정책 도입과 실제 세수 증가 사이의 시간차 등 복합적인 요소를 수반한다. 단계적인 개혁 설계 및 실행을 통해 정부는 제도적, 흡수적 역량을 구축하고, 초기 성과를 확보하여 사회적,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개혁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첫 번째 단계는 대규모 법률 또는 정책 쇄신 없이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하여 추가 개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및 제도 개혁을 통해 수익 증대를 심화 및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원 확대, 면세 합리화, 소비세 개편, 재산세 도입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납세자전담 사무소를 강화하고, 감사 및 위험을 관리하며, 세금 및 관세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하면 집행이 개선되고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세의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 투명성,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여 납세자 신뢰를 높이고, 세입 개혁을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시민 간의 재정적 및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여 세입 성과를 개선하고 유지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시민이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하려면 우수한 조세정책과 행정, 서비스 제공, 책임성, 투명성, 재정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세수 동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파트너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화, 디지털화, 자본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공격적 조세 계획, 이전 가격 문제 등 국가 간 조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행정 개혁, 공통 기준 마련,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개발 파트너는 불법적인 금융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정보 교환과 자산 회수를 지원해야 한다.

국내 자본을 효과적으로 동원, 유지,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재정관리를 강화한다. 효과적인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은 동원된 자원이 생산적인 자본으로 전환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 선정, 조달, 유지보수, 다년간의 재정 계획, 감독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흡수 역량이 낮은 저효율 상황에서 정부는 비용 초과를 피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대중 참여 확대, 재정 보고서의 적시 공개, 감사원 및 의회 감독 강화를 통해 예산의 신뢰성과 집행의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재정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조달 통제를 강화하며 공공자원의 유출을 줄이면 동원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효율성 개혁은 거버넌스의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금 조달 전략이다. 지출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는

기존 자원 범위 내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효율성 격차를 해소하면 연간 약 2,99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제약을 완화하는 데 재배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대된 투자로 인한 성장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여 공식화를 점진적이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과정으로 만든다. 정부는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식화에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식화는 단계적 통합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화된 추정과세 제도, 원스톱 등록센터, 디지털화된 절차, 중간적 법적 지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록 및 규정 준수 비용이 낮아지면 비공식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장점이 줄어든다. 세무 당국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협력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장기 자본을 동원하고 민관협력 및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

상호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재정 및 민간 자본 동원을 강화한다. 국내 세수 동원(DRM)과 공공재정관리(PFM) 강화는 프로젝트 준비와 목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투자를 유인한다.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평가, 통합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기반을 둔 잘 설계된 민관협력(PPP) 프레임워크는 장기적인 기관 자본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 이집트, 모리셔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는 강력한 지원 환경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속한 프로젝트 실행, 더 깊은 민관협력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자산 기반 연금 참여를 늘려 보험 가입률과 자금 풀을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연금 제도에서 배제되는 비공식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의무 가입 또는 자동 가입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정부는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식화에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프로젝트
채권과 인프라
펀드는 보증,
혼합 금융과
같은 위험 완화
도구를 통해
자본 동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 케냐, 우간다, 잠비아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는 소액 연금 프로그램과 개혁을 시행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보험 보장 범위와 제도권 자금 풀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공식 노동자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인프라를 위해 기관 자본을 동원한다. 프로젝트 채권과 인프라 펀드는 보증, 혼합 금융과 같은 위험 완화 도구를 통해 자본 동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 규제와 공시 기준을 강화하면 장기 인프라 증권의 발행이 더욱 용이해진다. 서아프리카 증권거래소(Bourse Régionale des Valeurs Mobilières)와 아프리카50(Africa50)의 협력은 공동 개혁이 연기금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심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로코에서는 대규모 연금 및 사회보장 자산을 운용하는 장기 저축기관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기관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본시장,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관 투자자 생태계를 강화하여 자본 동원을 확대한다. 세제 인센티브 표적화,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 국영기업(SOE) 부분 민영화, 상장기업 추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기업의 상장을 장려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 문해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발하여 보험 시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위험 완화 체계와 부분 신용 보증을 도입한다. 민간 부문, 국가개발은행, 다자개발은행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위험 제거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분 신용 보증, 정치적 위험 보험, 선순위 손실 트랜치, 초기 투자비 보전제, 환위험 완화 등은 프로젝트의 위험 대비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 투자자의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완화 체계를 심화하려면 프로젝트 품질, 시장 깊이, 위험 완화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³²

인프라 프로젝트의 품질과 금융조달성을 개선하여 국가 연기금, 국부펀드, 기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준비를 개선하고, 민관협력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며, 민간 자본과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률 및 조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거래 가능한 상품을 늘리고, 유통 시장을 개발하고, 기관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여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개선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며, 위험조정수익률이 높아진다.

디아스포라 자본 활용

디아스포라 자본 동원을 국가 개발자원 조달 전략에 통합한다. 디아스포라로부터 자본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정기적인 발행, 투자자 보호, 자본 이전 가능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 디아스포라 금융시장과 투자 펀드가 본국 송금 확대의 핵심이다. 송금액이 많은 국가는 가족 부양 목적의 송금 중 일부를 투자로 전환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금융 기관은 오프아웃 방식의 부분 할당을 통해 송금의 일정 비율이 저축 및 투자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또는 커뮤니티 디아스포라 채권은 디아스포라 인구가 고국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송금 비용 절감, 공식 송금 채널의 신뢰성 강화, 새로운 저축 수단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전문 투자 펀드, 디아스포라 채권, 공공-디아스포라 공동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송금을 구조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표적화된 세제 혜택과 부분 보증을 제공해 신뢰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디아스포라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본 이전이 가능하고 디아스포라 상품을 국가 개발 전략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자본 기반 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가치 창출과 자산 관리 중심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서는 인프라, 기술, 측정, 역량 강화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자본의 가치를 적절히 측정하고 이를 GDP 계산에 통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선된 자원 계획, 집행,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환경, 탄소, 생물다양성 시장을 활용하여 자연자본의 가치를 수익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 파트너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탄소 등록부, 생물다양성 검증, 청색금융 프레임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분열된 세계에서 글로벌 민간 자본 유치

프로젝트 준비를 강화하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금융종결 비율을 높인다. 글로벌 민간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려면 정부는 예측 가능한 부문별 제도, 강제력 있는 계약, 투명한 조달, 관세 시스템을 보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젝트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프로젝트 준비 역량을 강화를 위해 더 나은 거래 지원, 표준화된 문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합해 금융조달이 가능한 더 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다자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은 위험 보증 및 기타 금융 상품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가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제조업, 농업 가공,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 파이프라인의 수와 규모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수출 다변화를 확대한다.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만기 제약에 직면한 경우 신용보강, 채용자, 자본 재활용 구조를 활용하면 만기를 연장하고 위험 배분을 개선하며 국내 기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 범아프리카 은행, 지역 개발 금융기관간의 파트너십 강화는 공동 자금 조달 및

보증을 통해 글로벌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변화하는 세계 속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과 역량의 강화 및 통합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현실과 개발재원 조달 환경의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해외개발원조(ODA)는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 송금, 상업 대출 및 기타 외부 자금 유입은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개발재원 조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자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및 아젠다 2063(Agenda 2063)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 내향적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아프리카는 자국 금융 시스템의 잠재력을 활용해 개발을 위한 자본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개발 자본 동원 능력은 낮고 낙후된 은행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표준 지표로 측정한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소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은 2020~2024년 평균 GDP의 34.6%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52.0%에 훨씬 못 미친다. 민간부문 신용은 케냐(31.6%), 이집트(28.3%), 코트디부아르(21.4%), 나이지리아(9.4%) 등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GDP 대비 비중이 여전히 낮다. 베트남(121.6%), 말레이시아(121.5%), 칠레(111.8%) 등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³³

아프리카의 개발 자본 동원 능력은 낮고 낙후된 은행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규모 인구와
소규모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비규제 비공식
경제에 축적된
자본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주식 시가총액은 GDP의 44.6%로 남아시아의 100.1%에 비해 낮다. 그리스 스프레드 역시 2023년 평균 14.7%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5.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취약성은 아프리카가 장기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적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 강화 및 통합은 아프리카에 개발자원을 동원하는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경로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 강화: 병목 현상 해결 및 도달 범위와 영향력 확대

아프리카의 금융 부문을 발전시키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규제 체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규제의 취약성과 높은 신용 위험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감독이 약하면 시장 규율과 여신 심사 기준이 약화되고, 높은 부실 대출은 금융 중개 기능을 제약한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려면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연금 및 보험 당국, 기타 금융 감독 기관 등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체계와 감독 도구를 현대화해야 한다. 또한 신용 위험 관리 강화, 데이터 품질 및 투명성 개선, 규제 당국과 국가 및 지역 개발금융기관(DFI)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위험 분담 도구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자본시장은 소수의 거래소,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륙 내 대부분에서 유통 시장 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아프리카의 주식 거래액이 GDP의 약 4.4%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규모인 반면, 글로벌 평균은 120%에 달한다. 아프리카 증권거래소의 낮은 자본 동원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제한된 상장, 유동성, 기관투자자 참여 등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다.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율 안정성, 재정 건전성은 국내 저축 풀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실질 수익을 보장하는 열쇠이다.

아프리카의 방대한 국내 자본은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개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연금, 국부펀드, 보험회사에서 운용 중인 자산 풀을 포함하여 미개발된 대규모 국내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규모 인구와 소규모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비규제 비공식 경제에 축적된 자본도 존재한다. 이러한 국내 자원은 현지 여건과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 도입과 더 나은 중개를 통해 개발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내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함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더 나은 구조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 통합: 결속력 있고 통합된 금융 아키텍처

강력하고 심도 있는 국가 및 지역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첩하고 통합된 범아프리카 금융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금융 아키텍처를 통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범아프리카 은행(PABs)의 확장은 많은 아프리카 경제에 혁신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기준, 5개국 이상에 자회사를 둔 14개 범아프리카 은행의 총 자산 가치는 6,570억 달러에 달한다.³⁵ 이들은 대규모 대차대조표, 경영 역량과 전문성, 혁신성, 광범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를 결합해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 송금 흐름, 민간부문 신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 중개 및 지역 금융 통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범아프리카 은행의 역할 확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규제 협력과 국가 간 은행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공동체 간 건전성 기준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개발금융기관 및 국가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인프라 및 기타

생산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아프리카 은행은 국내 저축 동원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신용을 제공하며, 금융 통합과 지역 가치사슬 개발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주식시장은 지난 20년간 성장하여 시가총액이 6배 가까이 증가하고 2024년 GDP의 약 40%인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남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증권 거래소의 낮은 자본 동원 능력은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다. 지역 표준의 조화는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고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아프리카 자본시장통합위원회(West Africa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Council), 범아프리카 지급결제 시스템(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아프리카 거래소 연계 프로젝트(African Exchanges Linkage Project)와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는 자본화가 필요한 아프리카의 자본 시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기후 금융 및 이슬람 금융과 같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하면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의 범위와 개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초기 단계의 기후 금융 상품들은 회복력 있는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망한 혁신 메커니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기후 금융 흐름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이행하고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상 자금의 약 23%만 충족하고 있다.³⁶ 혁신적인 기후 금융 상품과 관련 자산군을 활용하면 전통적으로 고위험으로 인식되어 민간투자가 기피하던 기후 회복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³⁷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약 6조 달러로 추산되는 이슬람 금융 자산은 아프리카에 추가적인 개발자원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몇몇 아

프리카 국가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과 감독 지침을 도입했다.³⁸ 그러나 아프리카의 이슬람 은행 자산은 전체 은행 자산의 10% 미만을 차지하며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샤리아 준수 저축, 신용, 소액 금융 상품 및 기타 이슬람 금융 형태를 확대하면 이자 기반 금융을 기피해 공식 금융시스템 밖에 머물러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금융권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를 활용하면 자본 동원과 다른 유형의 금융을 대규모로 제공하여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보험 시장 규모는 2023년 640억 달러에 불과해 전 세계 보험 시장 보험료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G7 국가의 보험 시장 규모는 4조 8,000억 달러(67.1%)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보험 시장 침투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이다. 보험 자산은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침투율은 3개국 평균 GDP의 41.2%에 달한다.³⁹ 아프리카의 보험 부문은 장기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시장이 개발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되면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을 심화하며, 영향력이 큰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기관 저축의 동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분절된 보험시장에서 보험료를 모아 조정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기관 저축을 채권, 주식, 인프라 자산으로 확대 및 유도하여 시장 유동성, 수익률곡선 형성, 만기 연장을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위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2050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의 60~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확대되는 중산층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 및 상

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되면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을 심화하며, 영향력이 큰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기관 저축의 동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범아프리카
금융기관
네트워크는
지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에 부응한 부동산 개발은 장기 부채 구조와 인플레이션 헤지 특성을 가진 자산을 선호하는 장기 관투자자에게 자연스러운 자산군이 된다. 아프리카의 주요 부동산은 평균 수익률이 8~12%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⁴¹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토지와 미등록 부동산의 은행 담보 자산 전환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확대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며, 장기 저축 동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⁴²

효율적인 국가 간 자본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 통합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분절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 활동과 시장 깊이가 남아공과 이집트 등 소수의 경제 대국에 집중되어 있다. 분절화된 시장은 효율적인 국가 간 금융 흐름을 제한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일관성을 떨어뜨리며 중개 역할을 약화시킨다. 감독 기준 차이, 법적 불일치, 불균등한 제도적 역량으로 인해 국가 간 참여와 인프라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규정 준수 및 거래 비용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국가 간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지역 자본시장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시장 개발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은 고립된 국가 시스템을 통합된 기관의 지역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더 광범위한 경제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범아프리카 금융기관 네트워크는 지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결제 현대화, 감독 협력, 시장 인프라 분야와 같은 기존 이니셔티브는 대륙 차원의 경제 및 금융 협력을 향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관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거버넌스 관행, 운영 시스템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결제 시스템, 감독 메커니즘, 유동성 장치, 자본시장을 연결하여 일관된 아키텍처의 개발과 장기적인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보다 상호 연결된 금융 시스템은 자본 배분을 개선하고,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투자를 지

원하는 시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지역 및 국가 개발금융기관 간의 잘 조정된 생태계는 금융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국경을 넘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조정된 아키텍처는 아프리카의 금융 통합의 열쇠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국가개발은행(NDB)과 지역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성 기반 프레임워크는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서 국가개발은행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성할 수 있다. 지역 기관은 위험 분담, 기술 감독, 제도적 역량, 국경 간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륙 차원 플랫폼은 글로벌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거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아키텍처는 아프리카 내에서 아프리카 저축의 순환을 촉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금융 역량과 자주권 강화

금융 역량 강화는 영향력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금융 포용의 주요 장애물은 낮은 계약 이행 능력과 취약한 시장 경쟁이다. 여러 국가에서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조회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금융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이유로 미미했다. 첫째, 인구 및 주소 등록부가 없는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둘째, 많은 국가의 담보등기부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다. 셋째, 채무 불이행자나 담보 훼손자를 제재하는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금융 역량을 강화하려면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자본을 동원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통합된 범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율적이면서도 조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륙 및 지역 금융기관 네

트위크로 구성되어 아프리카의 금융 아키텍처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단기 정책 제안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을 제약하는 구조적,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 거시 금융 감시를 강화하여 금융 스트레스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리셔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강력한 거시 금융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한다. 공공부채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부채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책임성, 부채 지속 가능성 평가, 투자자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채관리국을 재무부에서 분리하면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집트,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투명한 국내 부채 관행을 가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유용한 동료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지 통화 채권 시장을 개발하여 강력한 국내 자본시장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신용 보증, 혼합 금융, 정치적 위험 보증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채 관리 기술과 위험 대시보드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츠와나,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 국내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10년에서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현지 통화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들은 현지 통화 부채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교훈을 줄 수 있다.

국가 및 전반적인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신용등급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부실 대출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등 대출자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면 금리 스프레드를 낮추고 자본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2026년 1월 아프리카 신용평가기관

(African Credit Rating Agency)의 출범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 그러나 각국은 신용 위험과 부채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⁴³

국내 및 지역 금융시장을 심화 및 통합한다. 범아프리카 금융 생태계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원활한 국가 간 자본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래 비용과 전염 위험을 줄이려면 규제 체계, 건전성 기준, 결제 시스템, 증권거래소 교차 상장, 국가 간 보험 적용, 연기금의 지역 단위 통합 운용 등의 조화가 필요하며 아프리카 금융시장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지역 금융 통합은 취약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에코뱅크(Ecobank), 유나이티드 बैं크 오브 아프리카(United Bank of Africa), 스탠다드 बैं크 그룹(Standard Bank Group), 아티자리와파 은행(Attijariwafa Bank), बैं크 오브 아프리카(Bank of Africa), बैं크 미스르(Banque Misr) 등 범아프리카 은행의 확장은 혁신을 통해 많은 아프리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국가 및 지역 프로젝트와 무역 금융의 현지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고 있다.

중기 정책 제안

규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은 계약 이행과 인센티브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려면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따라 건전성 체계와 감독 도구를 현대화해야 한다. 또한 신용 위험 관리(신용조회기관 및 담보등기부) 강화, 데이터 품질 개선,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국가개발은행과 지역 개발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 개

부실 대출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등 대출자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면 금리 스프레드를 낮추고 자본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에서
기후 금융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발금융기관의 개혁과 자본 확충은 아프리카의 금융 아키텍처를 강화하고 금융 포용과 개발재원 조달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채권 발행, 신디케이트론, 사모 발행에 국가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이 참여하면 시장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국가 및 지역 개발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연금, 보험, 국부펀드, 사회복지기금 자산을 자본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연금, 보험, 사회복지 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수정하여 아프리카 내 국내 투자를 강화하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기관 자금 풀을 확대할 수 있다.

기후 금융을 주류 금융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시킨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태양, 풍력, 수력), 막대한 탄소 흡수 능력(숲, 습지),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 덕분에 아프리카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아프리카에서 기후 금융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및 다자개발은행과 양자 개발 파트너는 양허성 자원을 활용하여 기후 투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비전통적인 자금 조달원에서 가치를 발굴한다. 위험 분담, 자산 담보 금융, 과도한 투기 금지, 윤리적 투자,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기반을 둔 이슬람 금융은 아프리카에 대안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는 연간 6,500억 달러 이상의 주택 금융 격차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의 주요 부동산 수익률은 평균 8~12%이지만, 이 분야는 아직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부동산 담보 금융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는 규제 체계를 통해 부동산 부문과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 정책 제언

금융 역량과 자주을 강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전략을 개발한다. 금융 역량과 자주권은 금융의 기술적 요소가 결정되는 자리에 아프리카가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험 관리, 부채 인수, 상환에 관한 고급 협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된 범아프리카 생태계는 맞춤형 역량 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 내 관리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에서 국제 개발 파트너 및 기타 국제 기관의 역할을 검토한다. 금융 역량과 자주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제 협력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이 국가개발은행(NDB)과 지역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해 대출 및 제도적 기술 역량을 제공하는 보조성 기반 프레임워크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국가 개발금융기관은 현장에 밀착해 프로젝트를 발굴 및 구성하며 지역 기관은 위험분담, 기술적 감독, 제도적 역량 강화, 국가 간 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대륙 차원의 플랫폼은 대규모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거시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프리카가 국제 규제 요건과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금융 역량과 자주권의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 포용성을 촉진한다. 여러 국가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신용조회기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인구 및 주소 등록부와 담보 기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가 간 자본 동원, 포용적 참여, 장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륙 전반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된 디지털 및 결제 인프라, 상호 운용 가능한 플랫폼, 조화로운 규제 표준 및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금융 아키텍처의 개혁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프리카의 역량을 강화한다.

'신 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의 이행은 아프리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 동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프리카 금융 안정 메커니즘(African Financing Stability Mechanism)을 시행하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채를 재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출범한 아프리카 신용평가기관(CRA)과 신 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AFAD)도 아프리카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아프리카의 고액자산가(HNWIs), 자선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African Diaspora Network)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교통, 에너지, 농업, 산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자본 동원 확대에 기여하여 아프리카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1조 3,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격차가 해소된다면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 동원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강화 및 통합하며, 금융 중개 효율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는 더 강력한 국내 금융 시스템,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결합한 실용적인 전략을 통해 금융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아프리카의 개발 목표를 뒷받침할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금융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NOTES

1. AfDB 2025a.
2. OECD 2025a.
3. AUC and AfDB 2024.
4. AfDB 2025a, 2025b.
5. AfDB 2025a.
6. AFC 2025.
7. IMF 2022; OECD 2021.
8.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the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2024) and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9. IMF 2022; OECD 2021.
10. Property taxes account for roughly 2.5–3 percent of GDP in North America and about 1.0–1.3 percent in Europe and Central Asia.
11. IMF 2022.
12.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estimates based data from World Bank (2025).
13. The efficiency gap of 41 percent means that of each \$100 spent in public investment, \$41 is wasted or does not translate into productive capital. In the 2024 *African Economic Outlook*, the inefficiency score was estimated at 39 percent, based on data for 2019. The updated data show that inefficiency has increased, calling for concerted policy measures—as highlighted in this report—to address challenges related to public investment spending.
14. Berg et al. 2013.
15. AfDB 2024b.
16. Francois, Konte, and Ruch 2024.
17. ALSF 2024.
18.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estimates.
19. AfDB 2025a.
20. AFC 2025.
21. OECD 2025a.
22. AfDB, IFC, and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 2022.
23. AfDB 2025a.
24. OECD 2011.
25.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026.
26. Konfidants 2022.
27. Volatility is measured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growth rate of financial flows over 2000–24.
28. Top five countries are Egypt, The Gambia, Kenya, Nigeria, and Senegal.
29. AfDB 2024a.
30. UNEP 2023.
31. AfDB 2024a.
32. Global Center on Adaptation 2022.
33.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World Bank (2025).
34.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World Bank (2025).
35. Such as Ecobank, United Bank of Africa, Standard Bank Group, Attijariwafa Bank, Bank of Africa, and Banque Misr.
36. Meattle et al. 2024.
37. Such as green bonds, carbon markets, blended finance, and climate risk insurances and guarantee schemes.
38. CFC Africa Insights 2019.
39. African Development Bank staff computation based on data from Swiss Re Institute (2026).
40. OECD 2025a.
41. The Exchange 2025.
42. IFC 2024.
43. APRM 2025.

REFERENCES

- AFC (Africa Finance Corporation). 2025. *The State of Africa's Infrastructure Report 2025: Mobilizing Domestic Capital*. Africa Finance Corporation, Lagos. <https://www.africafc.org/our-impact/our-publications/state-of-africa-infrastructure-report-2025>.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a. *Measuring the Green Wealth of Nations: Natural Capital and Economic Productivity in Africa*. Report presented at COP29, Baku, Azerbaijan, November 14. AfDB.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b. *African Economic Outlook 2024: Driving Africa's Transformation: The Reform of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AfDB, Abidjan, Côte d'Ivoire.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5a. *African Economic Outlook 2025*. AfDB, Abidjan, Côte d'Ivoire.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5b. *Africa's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Outlook 2025*. AfDB, Abidjan, Côte d'Ivoire.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 2022. "Gauging Appetite of African Institutional Investors for New Asset Class." AfDB, IFC, and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 <https://www.ifc.org/content/dam/ifc/doc/mgrt/gauging-appetite-of-african-institutional-investors-for-new-asset-classes-published.pdf>.
- ALSF (African Legal Support Facility). 2024. *Public-Private Partnership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n Africa—A Comparative Analysis*.
- APRM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2025. *An Africa Credit Rating Agency (AfCRA): Key to Shaping the New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APRM, Johannesburg. <https://au.int/en/documents/20250221/africa-credit-rating-agency-afcra-key-shaping-new-global-financial-architecture>.
-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2024. *African Tax Outlook 2024*. <https://ataftax.org/library/african-tax-outlook-2024/>.
- AUC (African Union Commission) and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 "Strategic Framework on Key Actions to Achiev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https://www.afdb.org/sites/default/files/afdb24-04_igs_standalone_highlights_english_0127.pdf.
- Berg, A., R. Portillo, S. Yang, and F. Zanna. 2013. "Public Investment in Resource-Abundant Developing Countries." *IMF Economic Review* 61 (1): 92–129.
- CFC Africa Insights. 2019. *Islamic Finance in Africa: The Upcoming Frontier*. <https://islamicbankers.center/wp-content/uploads/2019/02/islamic-finance-in-africa.pdf>.
- Francois, J. N., M. Konte, and F. U. Ruch. 2024. "Crowding In Effect of Public Investment on Private Investment Revisite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0881,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a78dca5c-dfc1-4d0c-b6bc-9f961fbe8e8e>.
- Global Center on Adaptation. 2022. *State and Trends in Adaptation 2022: Adaptation Finance Flows in Africa*. https://gca.org/wp-content/uploads/2023/01/GCA_State-and-Trends-in-Adaptation-2022_Adaptation-Finance-Flows-in-Africa.pdf.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24. "Scaling Housing Finance in Africa." IFC, Washington, DC. <https://www.ifc.org/content/dam/ifc/doc/2024/scaling-housing-finance-in-africa-factsheet.pdf>.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2. *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TADAT) Field Guide*. IMF, Washington, DC.
- Konfidants. 2022. *2022 African Sovereign Wealth Fund Index: A Story of Progress*. https://www.sovereignwealthafrica.com/wp-content/uploads/2023/06/Konfidants_2022_African_Sovereign_Wealth_Funds_Index_Report_.pdf.
- Meattle, C., A. Balm, J. E. Diaz, G. Miao, S. Stout, I. Gupta, S. Abraham, A. Sloley, and D. Wignarajah. 2024.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in Africa 2024*.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publication/landscape-of-climate-finance-in-africa-2024>.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Sovereign Wealth Funds as Investors in Africa: Opportunities and Barriers." Working Paper 303,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1/09/sovereign-wealth-funds-as-investors-in-africa_g17a201a/5kg52k4s0jbx-en.pdf.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 *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Asset Recycling: Unlocking Capital for New Invest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a. *Africa Capital Markets Report 2025*. OECD, Pari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africa-capital-markets-report-2025_7d26e1d3-en.html.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b. *Cut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Projections for 2025 and the Near Term*. OECD, Pari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uts-in-official-development-assistance-8c530629-en/full-report.html>.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026. *Sovereign Wealth Funds Profiles*.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https://www.swfinstitute.org/profiles/sovereign-wealth-fund>.

Swiss Re Institute. 2026. *Global Insurance Markets*. <https://beinsure.com/top-ranking-the-worlds-largest-insurance-markets/>.

The Exchange. 2025. "Why Global Capital Is Moving to Africa's Urban Property Markets." <https://theexchange.africa/africas-real-estate-capital/>.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3. "Our Work in Africa." <https://www.unep.org/regions/africa/our-work-africa>.

World Bank. 202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한국어판은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정본인 영문판을 바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문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는 여러 충격과 제한된 재정 여력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및 국내 역풍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2024년 3.5%에서 2025년 4.4%로 증가하였고, 아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앞질렀다. 2025년의 견고한 성과는 아프리카의 54개국 중 36개국이 2024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 생산량 증가, 거시경제 정책 지원, 광물 및 금속 가격 강세,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가 원조 감소와 무역정책 긴장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성장 둔화 효과를 완화한 결과다.

전망은 2026년에 4.2%로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4.4%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최소 19개국, 2027년에는 21개국이 5%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주로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 핵심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상품 시장과 국제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공급 충격이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은 현재의 글로벌 혼란이 지속되는 기간과 에너지 및 비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2027년 성장 전망은 현재의 글로벌 충격이 2~3개월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2026년 실질 생산량 증가율은 2025년에 비해 0.2%p 감소하고, 이전 전망치 대비 0.3%p 감소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 뒤에는 지속적인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협한다. 아프리카의 개발재원 조달 격차는 취약한 국내 자원 동원, 얇은 금융 시스템, 높은 외부 차입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개발 원조 감소와 지정학적 우선순위 변화가 나타나는 분열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인구학적 역동성, 통합 모멘텀, 경제 공간 확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내, 지역, 전략적 외부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거버넌스, 개발 효과를 강화하는 포괄적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지속적인 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조 5,000억 달러의 상업 은행 자산, 1조 2,000억 달러 이상의 주식 시가총액, 3,200억 달러의 보험 자산, 1조 달러 이상의 연기금, 국영기업,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 등 아프리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원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더 강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과 표준화된 투자 가능 상품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품은 인프라 구축, 산업화, 녹색 전환 지원에 필요한 기관 자본과 디아스포라 저축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피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환율 안정성,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대규모 국내 저축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실질 수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인 자본 가격 책정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금융자원과 기타 자산군을 전환하여 가속화되고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화 전략과 함께 국내 세수 동원 강화, 공공재정관리 개선, 공공투자의 생산적 자산 전환 능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개혁과 조정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Avenue Joseph Anoma

01 BP 1387 Abidjan 01

Côte d'Ivoire

www.afdb.org

